

## 2023.09.14(목)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3-09-14 오전 4:31

수정한 날짜: 2023-09-14 오전 7:06

### 2023.09.14(목) 증권사리포트

LG전자

불황에 강해진 면모

[\[출처\] 키움증권 김지산 애널리스트](#)

3분기 수요 우려 딛고 선전할 것

3분기 단독(LG이노텍 제외) 영업이익 추정치로 6,574억원(QoQ -11%, YoY 111%)을 유지하며,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킬 것이다. 주요 Set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비용 관리를 통해 선전할 것이다. 역시 가전의 이익창출력이 돋보일 것이다. 최근 전기전자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가전 수익성 기대 이상, 주가 반등 모색 시점

가전은 B2B 모멘텀과 불륨존 공략 전략을 바탕으로 부진한 수요 여건을 극복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 해상 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 이상의 수익성을 뒷받침할 것이다. 불륨존 공략 성과는 양호한 가동률로 반영되고 있다. 유럽형 히트펌프가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TV는 OLED 등 프리미엄 수요 약세, 패널 가격 강세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려에 비해 양호한 수익성을 달성할 것이다. 재고관리를 선제적으로 단행했고, 플랫폼 사업의 이익 기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패널 가격은 4분기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부품은 매출과 수주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다. 수익성은 일부 일회성 요인에 따라 유동적인 모습이지만,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고 있고, 신규 멕시코 공장이 4분기부터 본격 가동되면 운영비용을 상쇄할 것이다.

LG마그나가 유럽 거점이 될 헝가리 공장 설립을 발표했는데, 유럽 내 고객 대응력과 수주 경쟁력이 향상되고, 마그나사와 협업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니스솔루션은 IT 부문 수요 약세 속에 이익 기여가 미미하지만, 로봇,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신규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동사는 서비스 로봇 시장을 선도할 잠재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거래선과 본격적인 협업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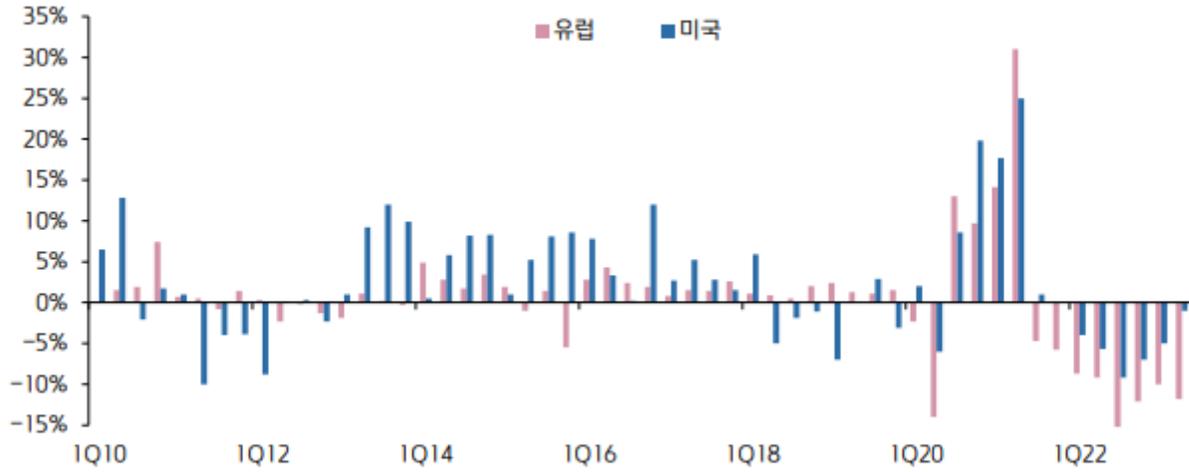
주가는 하반기 수요 부진과 실적 둔화 우려를 반영해 충분히 조정 받았다. 우려보다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반등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목표주가 15만원을 유지한다

### 투자지표

(억원, IFRS)	2021	2022	2023E	2024E
매출액	739,080	834,673	843,779	884,260
영업이익	40,580	35,510	40,750	44,615
EBITDA	67,873	65,361	72,447	76,909
세전이익	38,389	25,398	28,184	43,269
순이익	14,150	18,631	18,005	31,732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0,317	11,964	14,037	27,694
EPS(원)	5,705	6,616	7,762	15,315
증감률(%YoY)	-47.6	16.0	17.3	97.3
PER(배)	24.2	13.1	12.8	6.5
PBR(배)	1.45	0.82	0.85	0.74
EV/EBITDA(배)	4.6	3.7	3.2	2.7
영업이익률(%)	5.5	4.3	4.8	5.0
ROE(%)	6.3	6.6	7.0	12.2
순부채비율(%)	23.3	25.0	10.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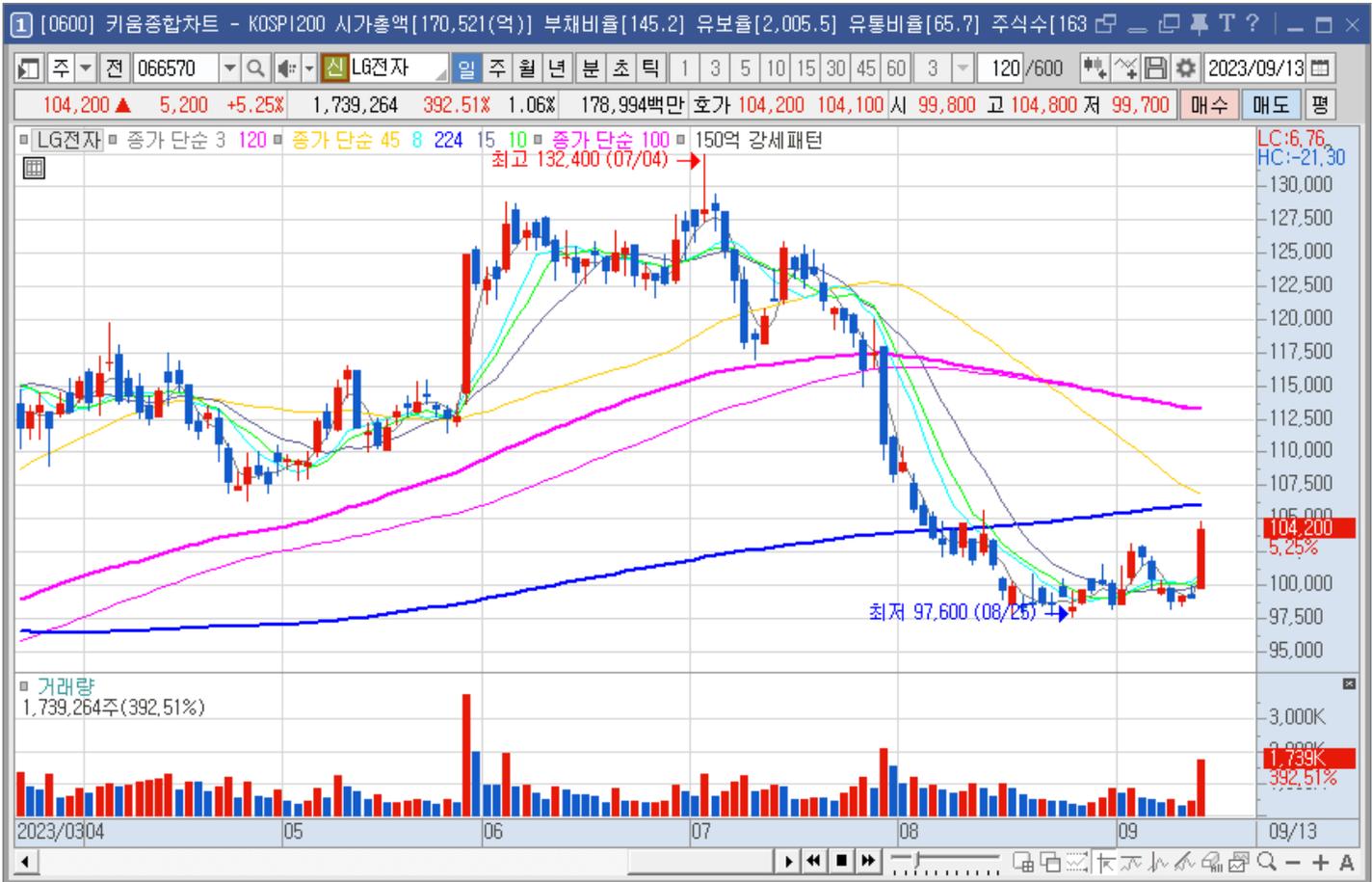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 미국과 유럽 가전 수요(YoY) 추이



자료: Whirlpool, Electrolux, 키움증권





삼성전기  
부진한 수요에도 실적 개선 흐름 유지  
[\[출처\] 하나증권 김록호 애널리스트](#)

### 3Q23 Preview: 영업이익 하향 조정

삼성전기의 23년 3분기 매출액은 2조 2,552억원(YoY -5%, QoQ +2%), 영업이익은 2,252억원(YoY -28%, QoQ +10%)으로 하향 조정한다. 중국 스마트폰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며, 중화권 고객사들의 주문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MLCC의 물량 증가폭을 하향 조정했으며, 이로 인한 가동률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 역시 기존대비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내 고객사 스마트폰 물량도 기대보다 소폭 낮아 광학통신 및 패키지 부문도 소폭의 실적 하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예상대비 우호적인 환율로 인해 실적의 하향폭은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 MLCC 원재료 내재화로 퍼포먼스에도 기여

삼성전기의 단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지만, 전분기대비 실적 개선 흐름은 유지된다. 전분기대비 실적 개선은 MLCC, 패키지 기판, 카메라모듈 전 사업부에서 골고루 가능할 전망이다. IT용 수요는 주춤하지만, 전장용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되며 전분기 대비 물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패키지 부문에서도 서버용 FCBGA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카메라모듈은 국내 거래선의 플래그십 모델 출시로 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장용 MLCC는 긍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실적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삼성전기는 전장용 MLCC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부산 공장에 원재료 CAPA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전장용 MLCC는 중장기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IT용 대비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원재

료 사용량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켈, 구리, BT 등의 핵심 원재료를 내재화하는 것은 비용 부담을 떠나 MLCC의 퍼포먼스 상향에도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경쟁력 차별화 요인으로 기대된다.

###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주가 레벨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85,000원을 유지한다. 삼성전기의 단기 실적하향 조정 및 중국 스마트폰의 부진 등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연간실적 눈높이는 낮아졌지만, 1) 분기 실적 개선 흐름 지속, 2) MLCC 업황의 바닥 통과, 3) 패키지기판의 체질 개선, 4) 전장용 카메라모듈 확대를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현재 PBR은 1.24배로 역사적 PBR 밴드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전장향 매출액은 MLCC를 필두로 패키지기판, 카메라모듈 모두 확대되고 있어 중장기 성장 기회의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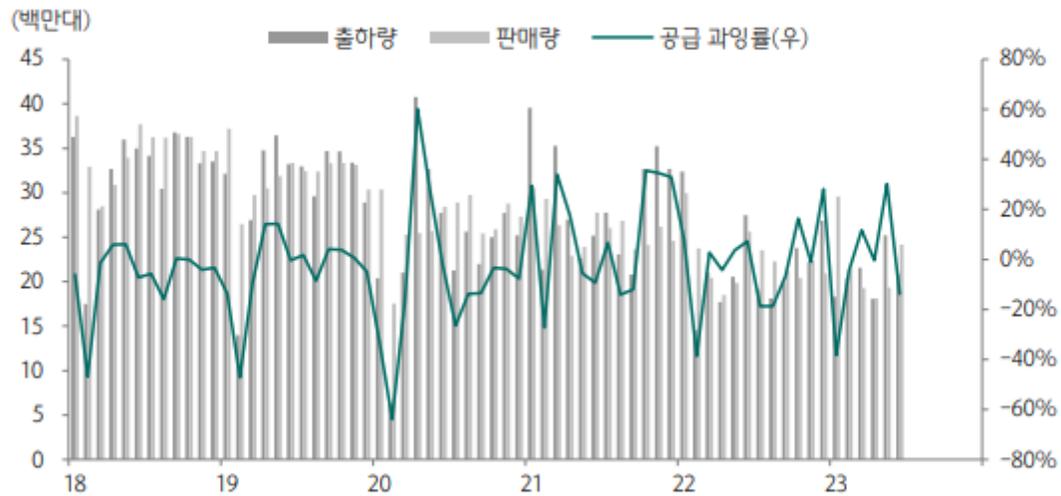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9,675.0	9,424.6	8,652.8	9,337.9	
영업이익	1,486.9	1,182.8	790.0	1,172.8	
세전이익	1,491.3	1,186.8	739.1	1,152.7	
순이익	892.4	980.6	550.6	835.1	
EPS	11,500	12,636	7,095	10,761	
증감율	47.76	9.88	(43.85)	51.67	
PER	17.17	10.33	19.52	12.87	
PBR	2.23	1.32	1.32	1.22	
EV/EBITDA	6.39	4.78	6.14	4.74	
ROE	14.29	13.75	7.10	10.05	
BPS	88,474	99,035	104,578	113,293	
DPS	2,100	2,100	2,100	2,300	

도표 3. 한국 Ceramic Capacitor 수출증량/금액/ASP YoY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4 중국 스마트폰 월별 출하량 vs 판매량



자료: Counterpoint, CAICT, 하나증권



## SAMG엔터

어린이들을 위한 소비시즌이 온다

[\[출처\] 유안타증권 권명준 애널리스트](#)

### 2023년 상반기 Review

SAMG엔터는 2000년에 설립된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으로 다양한 유아용 인기 IP를 보유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첫째, IP제작-유통-플랫폼-MD사업까지 가능한 Total Solution Provider이다. 둘째, 메가 IP를 확보하고 있다. 여아 대상 캐치!티니핑뿐만 아니라 남아 대상 미니특공대가 대표적이다. 셋째, 자체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어 매년 다수의 신작을 출시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매출액은 2022년 상반기 대비 39.5% 증가했다. 안정적인 국내 매출과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반면,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마트 직접 유통 전환에 따른 판관비 증가, 마케팅 활동 확대에 따른 광고비 증가, 신규 애니메이션 제작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 2023년 하반기: 성수기 + 새로운 시즌 + 테마파크/팝업스토어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을 전망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첫째, 하반기, 특히 4분기는 한국과 중국의 유아 완구 시장 성수기 시즌이다. 9월말 한국 추석(중국 중추절), 11월 중국 광군제,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등 어린이를 위한 강력한 소비 시즌이 이어진다. 둘째, 주력 IP들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 캐치!티니핑(시즌4, 9/27일 예정)과 미니특공대(시즌6, 9/29일 예정)의 방영이 시작될 예정, 어린이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캐치!티니핑의 시즌4 컨셉이 디저트이며, 이번 시즌부터 MD 제품 기획부터 유통까지 총괄한다는 점에서 매출 성장 및 이익률 개선이 기대된다.

셋째, SAMG 테마파크이다. 12월 판교에서 티니핑월드를 오픈할 예정이다. 테마공간 사업 모델로 아케이드 게임, 사진찍기, 인형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넷째, 팝업스토어이다. 5월 어린이날을 타겟팅하여 스타필드 하남점에 팝업스토어를 열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10개 Site(쇼핑몰/백화점 등) 내외에서 팝업스토어를 계획하고 있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억원, 원, %, 배)

결산 (월)	2019A	2020A	2021A	2022A
매출액	199	236	384	683
영업이익	24	-10	34	3
지배순이익	1	-104	-111	-224
PER	0.0	0.0	0.0	-6.7
PBR	0.0	0.0	0.0	4.2
EV/EBITDA	-0.2	-3.1	-1.7	48.2
ROE	1.9	560.4	106.2	-511.4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 1] 캐치티니핑 시즌4 런칭 예정(2023년 9월)



자료: SAMG 엔터,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니특공대 시즌6 런칭 예정(2023년 9월)



자료: SAMG 엔터,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큰 인기를 실감한 5월 어린이날 팝업스토어



자료: SAMG 엔터,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1] 전환사채 발행 (23.08.1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 총액	300억원
3. 사채 이율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2.5%
4. 사채 만기일	28.08.18일
5. 전환가액	23,923원
6. 전환에 따른 발행주식	125만 4,023주
7. 전환청구기관	25.08.18~28.07.18

자료: SAMG 엔터,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 코스맥스

### 코스맥스이스트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공시

[\[출처\] 유안타증권 이승은 애널리스트](#)

#### 자회사 코스맥스이스트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공시

코스맥스는 전일(9/12) 공시를 통해 코스맥스이스트(중국법인) 유상증자(제3자배정증자) 발행 공시를 하였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 1주당 1의결권이 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3,811,778주(신주 발행가액 29,986원)이다. 총 자금조달 금액은 1,143억원이며 제3자배정 대상자는 케이디비아이하나사업재편밸류업사모투자 합자회사이다. 신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코스맥스 유상증자 이슈 사라진 점은 주가에 긍정적

동사는 8월 18일 유상 감자 공시 이후, 8월 28일 코스맥스이스트 감자 금액(1,149억원)을 공시했다. 작년 10월부터 우상향 하던 코스맥스 주가는 9월 1일부터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다. 코스맥스이스트가 SV인베스트먼트 측에 지급해야 할 상환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신규 투자자 유치, 차입금 증가, 전환사채(CB) 발행, 유상증자)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동사는 과거 2016년, 2021년 유상증자 결정으로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코스맥스가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하반기 실적이 여전히 동사 주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스맥스이스트 기업공개(IPO)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

유상증자에 대한 다른 내용은 공시되지 않았으나, 투자자가 바뀔 만큼 여전히 코스맥스이스트 기업공개(IPO)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코스맥스이스트 상장에 대한 부분이 공시될 경우 기업가치가 더블카운팅이 될 우려가 존재한다.

####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F	2024F
매출액	15,915	16,001	17,553	19,270
영업이익	1,226	531	1,162	1,461
지배순이익	744	208	779	1,079
PER	17.1	37.2	20.4	14.7
PBR	2.4	1.3	2.4	2.1
EV/EBITDA	8.8	9.4	10.7	8.8
ROE	16.5	3.6	12.6	15.1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 4] 코스맥스 주요 이벤트



자료: Quantiwise, 언론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피엔에이치테크  
 낙폭과대, 하반기 최대 실적 전망  
[\[출처\] 하나증권 조정현 애널리스트](#)

고객사 생산 차질 이슈 해소, 모바일 OLED 매출 확대 예상

주요 고객사인 LG디스플레이의 아이폰15 OLED 패널 공급 재개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아이폰 프로 양산 승인 이후 9월 아이폰 프로 맥스까지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객사의 생산 차질 불확실성이 해소된 국면으로 피엔에이치테크의 모바일 향 소재 매출이 본격 성장할 전망이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23억원(+46.4%, YoY), 영업이익 22억원(+57%, YoY)으로 최대 분기 실적을 예상하며, 2분기 신규태블릿 OLED 소재 공급을 위한 R&D 비용 상승과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마진 훼손이 완전히 회복될 전망이다. 동사는 LG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고굴절 CPL 및 발광층 소재를 공급하는 메인 벤더사로 고객사의 중소형 패널 확대에 따른 수혜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태블릿 및 전장용 OLED 확대 수혜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태블릿 및 노트북 등 IT OLED 확장이 전망된다. 동사는 내년 LG디스플레이의 아이패드 OLED 패널 공급에 따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이미 고굴절 CPL과 발광층 소재 1종 공급이 확정되었으며, 태블릿은 투스택 탠덤

방식인 발광층을 2개 쌓는 구조로 발광층 소재가 채택되며 매출 성장세는 더욱 가파라질 전망이다. 약 1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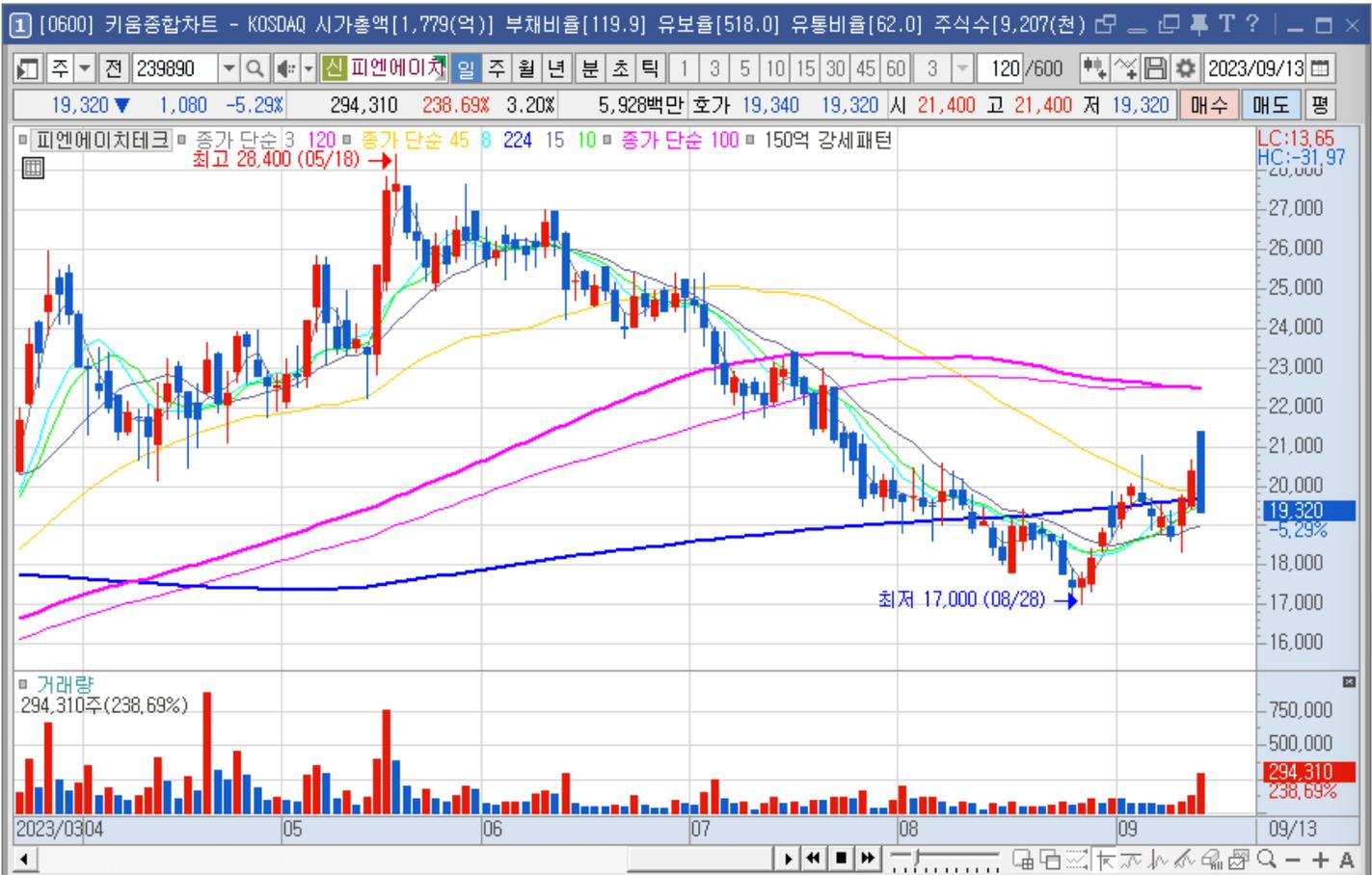
고객사의 전장 디스플레이 수주 증대에 따라 전장용 OLED 소재 매출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LG디스플레이의 차량용 패널 신규 수주 금액은 약 4조원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주 증대가 지속되고 있다. 피엔에이치테크는 전장용 OLED 향으로 2개의 발광층 소재를 공급 중이다. 이 역시 투스택 탠덤 구조인 만큼 전장용 소재 매출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 2023년 매출액 437억원, 영업이익 70억원 전망

2023년 매출액 437억원(+24.8%, YoY), 영업이익 70억원(+45.8%, YoY)으로 전망한다. 2024년 매출액 674억원(+54.2%, YoY), 영업이익 121억원(+72.8%, YoY)으로 예상한다. 하반기 고객사의 모바일 패널 가동 정상화 및 침투율 상승 수혜를 온전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큰 폭의 매출 성장은 1) 아이패드 OLED 적용 확대에 따른 소재 공급 확대, 2) 고객사 전장용 OLED 수주 확대, 3) OLED TV 향 소재 공급 본격화에 기인한다. 저굴절 CPL, 블루 프라임 등 신규 소재 개발 및 샘플 테스트가 지속되는 만큼 신규 소재 채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7	9	24	35
영업이익	(0)	(1)	4	5
세전이익	(8)	(6)	4	8
순이익	(8)	(6)	4	8
EPS	(1,259)	(843)	407	822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102.0
PER	(5.2)	(15.7)	71.7	19.3
PBR	(2.5)	17.2	13.8	5.1
EV/EBITDA	179.9	0.0	30.5	26.8
ROE	48.3	(92.5)	18.8	26.6
BPS	(2,609)	769	2,119	3,090
DPS	0	0	0	0



아모레퍼시픽

믿을 구석

[\[출처\] NH투자증권 정지윤 애널리스트](#)

### 기대감이 더 큰 시기

투자의견 Buy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155,000원으로 상향. 중국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한국 화장품 수혜와 면세점 판매 채널 정상화를 감안해 밸류에이션 적용시점을 2024년으로 변경했기 때문. 금번 밸류에이션에서 코스알엑스 유효 지분율은 유지했으나, 상반기 호실적으로 미루어 볼 때, 4분기 콜옵션 행사 가능성 높다 판단. 3분기 실적 부진 예견되나, 현 시점은 4분기 중국 설화수 수익성 개선과 면세 채널 회복에 무게를 둘 때. 다이공 매출 부재한 가운데, 10월 본격적인 면세 매출 회복 시 관련 노출도가 유의미한 동사의 주가 factor로 작용할 것

### 3Q23 Preview: 전분기에 이은 중국 적자 여파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9,375억원(flat y-y), 영업이익 330억원(+76% y-y)으로 컨센서스 하회할 전망. 5세대 설화수 재고 조정과 중국 마케팅비 증가가 주요

국내 화장품 매출액 4,384억원(-10% y-y), 영업이익 263억원(-8% y-y) 추정. 면세(-17% y-y) 약세, 글로벌 역직구 물량 조정으로 전체 이커머스(-15% y-y)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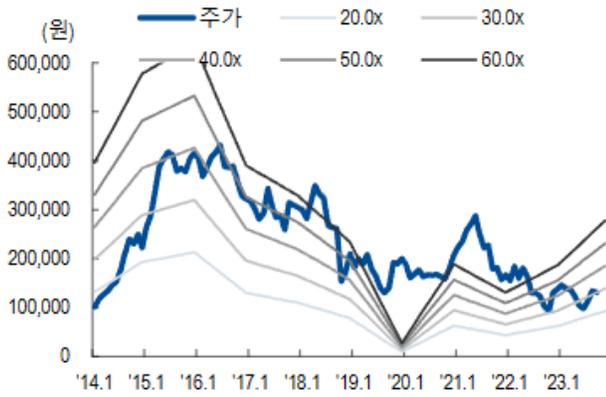
생활용품 매출액 1,025억원(+4% y-y), 영업이익 37억원(+361% y-y) 추정. 포트폴리오 재정비 및 올리브영 채널 집중으로 흑자 기조

해외 매출액 3,833억원(+14% y-y), 영업이익 31억원(흑전 y-y) 추정. 국별매출 성장률(y-y)은 아시아 9%(중국 10%, 그 외 8%), 북미 40%, EMEA 26% 추정. 중국 설화수 매출 -1% y-y 추정하며, 온라인(Tmall) 재고 조정 및 이니스프리 리뉴얼 마케팅 비용 탓에 102억원 적자 추정. 중국 라네즈 브랜드의고성장 고무적이며, 일본은 신규 브랜드(헤라, 에스트라, 프리메라) 진출 가속화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4,135	3,954	4,270	4,499
증감률	-15.0	-4.4	8.0	5.4
영업이익	214	183	297	330
증감률	-37.6	-14.7	62.6	11.2
영업이익률	5.2	4.6	7.0	7.3
(지배지분)순이익	134	189	288	319
EPS	2,175	3,104	4,758	5,268
증감률	-30.6	42.7	53.3	10.7
PER	63.2	41.9	27.3	24.7
PBR	2.0	1.8	1.7	1.7
EV/EBITDA	16.3	16.0	12.3	11.3
ROE	2.8	3.9	5.7	6.1
부채비율	21.4	20.4	20.3	20.0
순차입금	-334	-653	-987	-1,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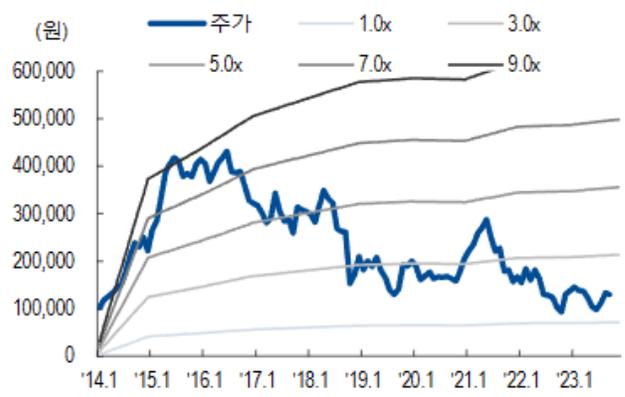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아모레퍼시픽 12M Fwd PER Band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아모레퍼시픽 12M Fwd Trailing PBR Band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한화솔루션

낮아진 눈높이, 향후 개선 방향성에 주목

[\[출처\] NH투자증권 최영광 애널리스트](#)

턴어라운드 시점과 중장기 실적 개선 방향성에 주목

목표주가를 45,000원으로 12% 하향. 태양광センチ먼트 약세 및 비교기업들의 주가 하락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에 대한 Target 멀티플을 기존 EV/EBITDA 9.2배에서 8.5배로 하향했고, 부진한 케미칼 및 태양광 모듈 수익성을 고려해 2023년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기존 대비 17% 하향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하락을 지속하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 3분기까지 웨이퍼 원가 인식 시차에 따른 수익성 둔화 예상하나, 낮아진 웨이퍼 가격이 반영되는 4분기부터 모듈 수익성 반등 나타날 것. 기존 2024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었던 2GW의 증설을 앞당겨 가동 중임을 고려하면 AMPC(첨단생산시설공제) 규모도 커질 전망. 중장기 실적 개선 방향성에 주목 필요. 투자의견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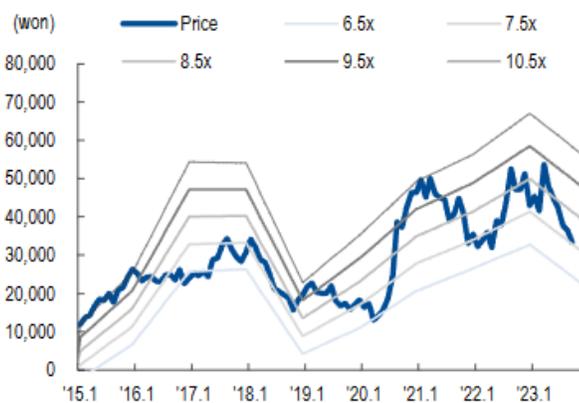
3Q23 Preview: 바닥을 다지는 중

매출액 3.6조원(+6.4% q-q), 영업이익 1,047억원(-46.0% q-q, 영업이익률 2.9%)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 하회할 전망. [신재생에너지]영업이익 603억원(-56.3% q-q, 영업이익률 3.2%) 전망. 기존 발전사업 매출액 1조원 예상했으나, 일부 프로젝트 협의 및 매각 지연으로 매출액 7,000억원(영업이익 490억원, 영업이익률 7.0% 추정) 발생하고, 부정적 레깅 효과로 인한 모듈 수익성 하락, 분산형 발전 관련 비용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6% 감소 예상. AMPC 인센티브는 351억원 반영. [기초소재]영업이익 320억원(-35.0% q-q, 영업이익률 2.5%) 전망. 부진한 수요로 인해 스프레드 약세 지속된 영향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13,654	13,926	13,997	14,413
증감률	27.3	2.0	0.5	3.0
영업이익	966	753	1,110	1,704
증감률	30.9	-22.0	47.4	53.5
영업이익률	7.1	5.4	7.9	11.8
(지배지분)순이익	359	294	698	1,102
EPS	1,878	1,679	4,060	6,413
증감률	-43.5	-10.6	141.8	57.9
PER	22.9	19.8	8.2	5.2
PBR	0.9	0.6	0.6	0.5
EV/EBITDA	8.3	8.5	6.2	4.4
ROE	4.2	3.2	7.1	10.2
부채비율	140.8	143.4	141.0	127.9
순차입금	4,404	5,825	5,577	4,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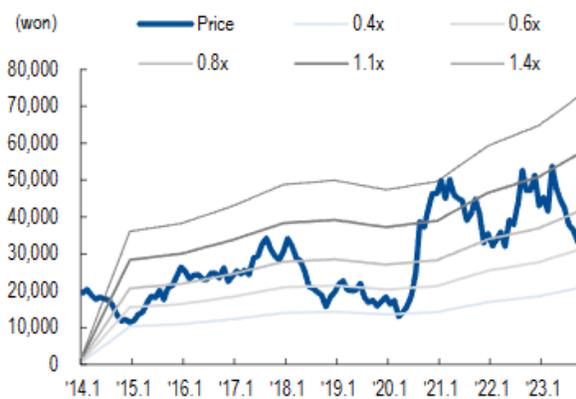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1. 한화솔루션 EV/EBITDA Band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한화솔루션 PBR Band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